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일상'의 특성과 경험의 신화화(神話化) 양상

정진희(강원대)

1. 序
2. <천지왕본풀이> : 신화가 말하는 신화적 일상'
 - 2.1. <천지왕본풀이>의 주요 모티프와 그 의미
 - 2.2. '신화적 일상'의 특성
3. <칠성본풀이> : 경험의 신화화 양상
 - 3.1. 신화 속의 뱀과 사신(蛇神)
 - 3.2. '뱀'의 문화적 해석과 신화로의 수용 원리
4. 結

1. 序

신화와 일상의 상관관계를 논한 기존의 연구는 신화 서사의 분석을 통해 신화에 투영된 전승 집단의 '일상'의 모습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¹⁾ 선행연구에서는 '일상'이라는 개념어를 명확한 정의 없이 쓰고 있으나, 공적 영역과 구분되는 사적 영역 및 사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연구에서 가족에 대한 신화가 연구 대상으로 주로 다루어진 것은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가

1) 신화와 일상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선행연구는 최원오, 「무속신화, 그 속에 반영된 가족의 일상적 삶과 의미」(『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6)를 들 수 있다. '일상'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연구 내용상 신화에 투영된 전승집단의 '일상'을 고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에는 이수자, 「제주도 큰굿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구성상의 특징과 의의」(『두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장유정,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도 가족제도의 한 특징」(『두비문학연구』 14, 한국구비문학회, 2002) 등이 있다.

죽은 이러한 ‘일상’, 즉 사적 영역의 삶의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이러한 ‘일상’ 개념은 공동체의 삶과 개인의 삶이 유리되는 ‘근대’라는 시공간을 분석하는 가운데 도출된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칠게 말하자면 위와 같은 연구 시각은 ‘근대’를 배경으로 도출된 개념으로 근대 이전 혹은 非근대의 현상-신화-을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만일 신화에서 위와 같은 개념의 근대적 ‘일상’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 신화가 전승·향유되는 시공간의 ‘근대’적 성격이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 시각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가장 근대적이지 않은 장르²⁾인 ‘신화’가 ‘근대’라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전승되는가를 밝히는 성과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드러나는 신화의 특질은 신화 장르 자체의 본질적이고 근원적 특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근대적 일상’ 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신화와 일상의 관련양상을 고찰하는 연구는 ‘근대 안에서의 신화’ 연구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여기에서, 미시사의 영향으로 관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근대적 일상’ 개념의 틀을 벗어나는 이른바 ‘신화적 일상’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화가 신화의 본질적 특성을 잃지 않고 전승되는 신화적 공간³⁾에서, 삶은 근대의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신화의 정의에서 ‘신화적 일상’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 일상 생활에서의 보편적인 경험을 특정한 의미가 두드러지도록 집약화해서 이야기로 만든 것이 신화이며, 일단 성립된 신화는 행동의 규범이나 당위로서 간주된다.³⁾

여기에서의 ‘일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가? ‘일상’에서의 보편적 경험을 집약화하여 이야기로 만든 것이 신화라면, 위의 정의를 가능하게

2) 근대적 이성의 대척점에 비근대와 전근대의 ‘신화’를 두는 근대적 입장에 대해서는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문학과 지성사, 2001)을 참조.

3)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31 면

한 한국 신화가 어떤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일별함으로써 '일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터이다. 본고에서 다룰 두 편의 신화가 전승되는 제주도 지역의 신화에 국한하더라도, 신화의 주제는 탄생이나 죽음과 같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 문제, 우주와 세계의 형성 및 기원에 관한 고찰, 농경의 풍요나 화복(禍福)처럼 인간 삶의 물질(物的) 상황을 좌우하는 조건 등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이렇게 볼 때 '신화적 일상'이란 '근대적 일상'처럼 인간 삶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양상과 국면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화의 본질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신화와 일상과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면 이러한 '신화적 일상'의 양상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제주도'라는 공간과 그 신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 시대의 많은 문헌 기록들이 말해주듯⁵⁾ 제주도는 일찍부터 그 이질적인 삶의 양상으로 인해 주목받아 온 지역으로서 신화와 의례, 신앙이 공동체의 삶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고, 풍요로운 신화 자료가 현재까지도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특징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영위된 일상이 이른바 '신화적 일상'에 가까웠으리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므로, '신화적 일상'의 양상을 고찰하는 데 제주도와 그 신화는 적절한 연구대상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고의 목적은 신화와 의례, 신앙이 공동체의 삶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공간에서 전승되는 신화를 분석하여 신화가 제시하는 신화적 일상의 양상 및 특징을 고찰하는 한편, 신화적 일상 속에서의 경험이나 인식이 어떻게 신화로 구체화되는가를 살피려는 데 있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인용한 '일상 생활에서의 보편적인 경험을 특정한 의미가 두드러지도록 집약화해서 이야기로 만든 것이 신화이며, 일단 성립된 신화는 행동의 규범이나 당위로서 간주된다'는 тезис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그 양상을 상세

4) <생불할망본풀이>, <차사본풀이>, <천지왕본풀이>, <세경본풀이>, <삼공본풀이> 등이 이러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작품론의 논자에 따라 그 주제가 다르게 파악되기도 한다. 보다 엄밀한 개별 신화에 대한 주제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5) 본고는 청음 김상현의 『南樣錄』, 병와 이형상의 『南宦博物』, 태호 이원진의 『탐라지』 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화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2. <천지왕본풀이> : 신화가 말하는 ‘신화적 일상’

<천지왕본풀이>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창세시조 신화’이다. 주지하다시피 ‘창세시조 신화’는 인간이 관계맺고 있는 ‘세계’란 무엇이며, 그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세계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며 질서의 주재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 말하는 신화이다. 그러므로 신화는 단지 ‘환상’이나 ‘판타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이야기로 구현되는 일종의 사유체계라는 견해⁶⁾를 수용할 때, ‘창세시조 신화’는 일종의 철학적 우주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제주도의 창세시조 신화인 <천지왕본풀이>를 분석함으로써 <천지왕본풀이>를 전승·향유했던 집단의 세계인식 양상을 살펴볼 터인데, 이 과정에서 신화 전승 집단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 즉 ‘신화적 일상’의 특질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1. <천지왕본풀이>의 주요 모티프와 그 의미⁷⁾

(가) 혼돈

<천지왕본풀이>의 서두는 천지개벽 이후의 혼돈으로 시작된다. 혼돈의 양상은 1) 해도 들이고 달도 들어어서 낮에는 사람들이 타 죽고 밤에는 열이 죽으며, 2) 동물과 귀신이 사람의 말을 하여 동물과 인간의 구분도, 산

6) 레비스트로스(안정남 옮김), 『야생의 사고』, 한길사, 1999 참조

7) <천지왕본풀이> 자료와 각편 비교는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 및 박종성 『한국 창세사사시 연구』(대학사, 1999)에 상세하다.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천지왕본풀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서사단락을 재구성한 다음 신화적 일상의 양상을 추론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티프를 가려 뽑았다. 주요 대본으로 삼은 것은 ‘박봉춘본’(赤松智城·秋葉隆(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상』, 동문선, 1991)과 ‘정주병본’(현용준, 『제주도무속신자료사전』, 진구문화사, 1980), ‘이중춘본’(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 보존회, 1998)이다. ‘박봉춘본’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채록된 가장 오래된 자료이고, ‘정주병본’은 제의의 제차 기록이 상세하여 제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이중춘본’은 가장 최근에 채록된 새로운 자료라는 점에 주목하여 가려 뽑았다.

사람과 귀신의 구분도 없다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이 모티프에는 <천지왕본풀이>가 상징하는 '세계'의 범주가 잘 나타나 있다. <천지왕본풀이>의 세계는 해와 달로 구체화되는 '천체'를 비롯, 인간과 동물, 귀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동물과 귀신이 '인간의 말'을 하면서 인간과 같은 차원에 놓이게 되는 것을 부정적 혼돈 상태로 본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마)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나) 천지왕의 수명장자 정치

지상의 수명장자는 천상에서 내려온 천지왕에 의해 정치된다.⁸⁾ 수명장자가 정치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의 '악행(惡行)' 때문인데, 그 악행이란 곡식으로 장리를 놓아 부지절한 방법으로 부(富)를 축적한 것,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아껴 조상에게 제삿밥을 올리지 않은 것, '말 아홉 쇠 아홉 개 아홉'을 기르는데 이들이 사납게 굴면서 인간을 육보인 것 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악행'이 모두 잘못된 부(富)의 축적 및 그것의 그릇된 행사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행한 부정한 일,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을 모시지 않는 일, 부의 상징인 '말 아홉 쇠 아홉 개 아홉'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육보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일 등이 '악행'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수명장자는 축적된 부를 기반으로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악인으로 이해된다.

<천지왕본풀이>는 이러한 악행을 지지르는 장자를 제거해야 할 존재로 지목한다. 천지왕은 '포악무도'한 장자의 집을 불사르고 그를 파리, 모기, 각다귀로 만드는 한편 그의 후손들마저 팔벌레나 술개 같은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장자는 물론 장자의 집, 그의 후손들까지 없애버리는 것은 지상 세계에서 장자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다는 의미이다. 장자와 장자의 속성을 이어받은 자손들을 파리나 모기, 각다귀, 벌레 등으로 만듦으로써, 인간과는 다른 영역을 구성하는 '동물'의 세계 속에 그들을 봉인해 버

8) '박봉춘본'에서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천지왕은 수명장자 정치에 실패하고 소별왕이 수명장자를 정치한다. 하지만 소별왕 역시 천지왕의 아들이고 보면 천상 존재에 의한 지상 악인의 정치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현선, 앞의 책, 96~101면 참조.

리는 것이다. 불로 태워 없애든 동물의 세계 속으로 밀어내 버리든,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장자’의 ‘속성’을 추방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이다. 여기서 추방의 대상이 되는 장자의 ‘속성’이란 위에서 살핀 장자의 ‘악행’, 즉 부(富)의 부당한 축적 및 그것의 부당한 사용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해 둔다.

(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탄생

이 모티프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지왕이 지상국 부인과 결연하여 낳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아버지를 찾아가 그의 권위에 기대어 저승과 이승을 차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천지왕본풀이>가 제시하는 세계의 공간 구성 및 그 공간들 사이의 힘의 위계가 드러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각각 저승과 이승을 차지하여 ‘법지법’을 마련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아버지인 ‘하늘’의 천지왕으로부터 ‘하늘’의 아들임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박봉춘본’에서 아들 형제는 아버지가 ‘본미분장’으로 어머니에게 주고 간 ‘꺄씨’를 심어 그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아들임을 확인받은 후 둘이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차지하라는 말을 듣는다. <천지왕본풀이>에서 ‘하늘’은 이승과 저승보다 상위의 위계에 자리하면서 그 두 영역을 관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봉춘본’에서는 인간 세계의 질서를 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것까지 천지왕의 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능력이나 권위가 아버지의 그것을 능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천지왕은 가장 큰 힘과 권위를 지니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떠난, 이른바 ‘숨은 신’과 같은 존재이고, 또한 앞서 살핀 대로 아들의 힘과 권위는 천지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주병본’에서 이러한 모습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두 형제가 일월을 조정하고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는 것 역시 ‘꺄씨’ 줄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이후의 일이다. ‘정주병본’에서 아버지는 직접 나타나 아들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거나 좌정처를 마련해 주지는 않지만,⁹⁾ 아들들은 아버지 없는

9) ‘정월이라 셋뫓날은 꺄씨 박씨 내여놓고 싱글 제, 큰성님은 박씨를 싱그고 죽은 아시 꺄씨를

‘용상’을 타고 논 것만으로도 일월을 조정하고 이승과 저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늘에서 하강한 신과 지상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승과 저승이라는 공간을 각각 차지한다는 것에서 <천지왕본풀이>의 공간 구성의 일면이 파악된다. 세계는 이승과 저승, 그리고 이승과 저승을 관장하는 ‘하늘’로 이루어진다. 또, ‘하늘’은 이승과 저승의 수직적 상위에 자리한다. 이것은 실제적 공간 구성일 뿐만 아니라, 신화 안의 ‘세계’를 구성하는 공간들의 추상적 힘의 위계이기도 할 것이다.

(라) 인세차지 경쟁

대별왕과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수수께끼와 꽃 피우기 내기를 한다. 수수께끼는 지혜 거름의 의미가 있고, 꽃 피우기 내기는 생명을 얼마나 잘 자라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제주도의 다른 신화인 <이공본풀이>를 보면 꽃은 곧 인간의 생명력을 나타내며,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동해 용왕 따님 아기와 명진국 따님 아기 중에서 누가 아이의 출산을 담당하는 산신(産神)으로 좌정할 것인가를 두고 역시 꽃 피우기 내기가 이루어진다. 수수께끼 내기와 꽃피우기 내기로 이루어지는 인세차지 경쟁의 내용은, 지혜 및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이승을 순조롭게 운용하는 데 유용한 덕목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서 이승을 차지함으로써, 이승은 이승을 관장하는 데 필요한 덕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차지가 되었다. 덕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속임수까지 써서 경쟁에 이긴 자가 이승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승은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적 공간이 되고 말았다. <천지왕본풀이>는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주요 무대인 이승이 불완전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승법이 마련될 때 이승의 주재자가 저지른 ‘원죄’에서 비롯

노았더니 옥황테데 줄이 벌어 가옴데다. 성계 둘이 이 가지 저 가지 밧아야진 옥황으로 가고 보니, 아바님이 타시는 용상 뵈에 감아지였고나. 아바님은 웃고 용상만 이십테다.’ 현용준, 앞의 책, 30면.

된 일이기 때문이다. <천지왕본풀이>에 따르면, 이러저러한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현재의 공간은 오히려 보다 더 ‘이승다운’ 것이 된다.

(마) 질서 정립

이승과 저승의 주재자가 결정되고 나서, 천지개벽 이후의 혼돈을 바로잡는 행위가 일어난다.¹⁰⁾ (가)에서 살핀 혼돈의 양상은 여기에서 해소된다. 1) 복수(複數)의 일월(日月) 문제는 활로 쏘아 해 하나, 달 하나씩을 떨어뜨림으로써 해결된다. 복수의 일월은 천체 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는데, ‘일월조정’은 그러한 교란된 질서가 대별왕(혹은 소별왕)에 의해 바로잡혔음을 보여준다. 질서의 주재자 혹은 질서가 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주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 ‘송피가루 닷 말 닷 되’를 뿌려 사람의 말을 하는 짐승과 귀신을 인간으로부터 분리해 낸 것은 동물 / 인간 / 귀신을 분명히 변별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동물은 인간처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점에서, 귀신은 인간과 같은 형상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람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천지왕본풀이>는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게 함으로써 다른 둘과 인간을 구분 짓고 있다. ‘언어’는 ‘문화’의 다른 이름이다. 즉, 인간이 동물이나 귀신과 구분되는 것은 언어, 즉 문화를 지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2.2. ‘신화적 일상의 특성

위에서 살핀 내용을 토대로 하면 <천지왕본풀이>의 세계는 ‘이승’과 ‘저승’, 그리고 하늘 즉 ‘천상’의 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승’은 인간의 공간이며, ‘저승’은 ‘이승’과 수평적인 공간에 위치하는 非 인간의 공간이자 이승보다 ‘맑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공간이다. 이승과 저승 공간은 소별왕과 대별왕이 주관하는데 이들이 두 공간을 주관하게 된 것은 ‘천상’에 있는 아버지의 권위에 기댄 것이므로, ‘천상’은 이승과 저승

10) ‘일월조정’은 각편에 따라 ‘인세차지 경쟁’ 이전에 일어나기도 한다.

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승의 수평적 맞은편에는 저승이, 이승과 저승의 수직적 맞은편에는 천상이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승과 저승은 기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공간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질서 정립 중의 하나가 귀신을 인간에서 분리해 낸 것이고 보면, 인간의 공간인 이승과 귀신의 공간인 저승은 명확히 분리·단절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천상' 역시 이승과 저승 두 공간과 단절되어 있지만, 이승과 저승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된 공간이다. 지상의 대별왕과 소별왕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천상의 존재가 남긴 '꺾지 못'이란 것이었고, 천상 존재의 힘을 나누어받은 대별왕·소별왕의 송피가루를 뿌리는 행위에 의해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분명해진 것은 이러한 공간 구성 양상과 역관계를 잘 보여주는 화소이다.

한편, 인간 삶의 주된 터전인 이승은 일월(日月)로 대표되는 천체, 서로 구분되는 동물과 인간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일월조정에 일조량과 홍수 조절의 의미가 있음'¹¹⁾을 고려할 때 '일월'로 대표되는 천체는 자연적 기후와 관련되고, 이 기후는 삶의 터전의 자연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런 해석에 따르면 천체는 산과 강, 숲과 들 등의 자연적 환경을 의미하게 된다. 즉, 이승은 인간과 동물, '자연적 환경'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다. 자연적 환경은 인간과 동물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과 동물은 분리된 영역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이승의 공간 구성은 천상-이승-저승간의 공간 구성이 자연적 환경-인간-동물의 형태로 반복된다는 점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 매일 반복되는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공간, 즉 '이승'에 대해 주목해 보자. 그것은 '저승'이나 '천상'과는 분리된 공간이지만 그 두 공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지적했다. 그런데, '이승'은 인간만의 공간이지는 않다. 이승'은 '자연'과 '동물', '인간' 모두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승'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인간은 '자연' 및 '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승'의 주인은 결코 인간이 아니다. 힘의 우열에 있어서 인

11)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7~18면.

간은 결코 다른 것들의 우위에 서지 못한다. 홍수나 가뭄 등의 기후조건이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인간 삶의 질이 결정됨을 볼 때 자연의 힘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있고, 동물 역시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미지의 능력을 소유한 존재이다. 인간이 자연이나 동물의 힘을 이용하여 살아나가고, 그 이용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례'를 통해 기원하는 것은 인간이 그들보다 힘의 열세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만 인간은 '언어'도 상징되는 '문화'를 지닌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들과 구분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의 열세 속에서도 그들과 병존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 및 이와 관련되는 삶의 양상은 인간을 최고의 지위에 두고 자연과 야만을 극복하는 존재로 설정하는 근대적 가치와는 매우 다른 것임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²⁾

또 <천지왕본풀이>는 인간의 삶이 동물과 자연의 병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이승'을 제어하는 '힘'의 소재가 '신(神)'에게 있음을 제시한다. (마)에서 살펴본 대로, 일월(日月)로 대표되는 자연을 조정하고 동물을 인간에게서 분리해내어 인간의 영역을 만들어준 것은 천상의 신(神)으로부터 권위와 힘을 부여받은 '대별왕(혹은 소별왕)'인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신'에 대한 경외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설정된다.

이렇듯 <천지왕본풀이>는 인간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이승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세계를 운영하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대별왕과 소별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일련의 서사를 통해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천지왕본풀이>는 이러한 공간 속에서 인간이 어떤 윤리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위에서 살핀 (나) 천지왕의 수명장자 정치 화소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에서 '장자'는 지상의 부

12) 근대적 사고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인류 보편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와 공간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며, 시공간의 특성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레비스트로스, 앞의 글을 비롯, 들뢰즈·가타리(김재인 옮김),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참조.

와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하게 행사하며 심지어 각편에 따라서는 천지왕이라는 천상 인물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결국, 장자는 이러한 악행 때문에 천지왕에 의해 철저히 징치된다. 천지왕은 장자를 포함, 장자의 속성을 물려받은 그의 자손들까지 인간의 공간에서 축출하여 '빙인'해 버림으로써, '장자'로 형상화되는 속성이 인간 공간 내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천지왕본풀이>라는 신화가 전승되는 공동체 내에서 '장자'의 속성은 부정되고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특징은 남아메리카 과라니족을 대상으로 하여 신화가 '살아있는' 공동체의 원리를 고찰한 클라스트르의 연구¹³⁾에서도 발견된다. 클라스트르는 과라니족 무문자사회에는 '수장'은 존재하나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권력의 독점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가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는 '문명'의 창출 등을 '수장'과 다른 '왕'의 특징으로 든다. 신화적 원리에 의해 인간 삶이 규제되고 영위되는 공간에서 '왕'의 등장은 그 신화적 원리를 파괴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화를 '살아가는' 공동체는 인간 사회 내부에서 '왕'이 출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¹⁴⁾

과라니족이 '왕'을 부정하는 것은 <천지왕본풀이>가 인간 사회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수명장자를 징치하고 그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과 닮아 있다. 수명장자는 타인의 몫을 빼앗음으로써 자신의 몫을 불려가는 인물이며, 천상이 주도하는 질서와 신의 권위에 대항하는 인물이자 부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인물이다. <천지왕본풀이>는 수명장자의 악행을 서술함으로써 어떠한 특성이 <천지왕본풀이>가 구축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그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요소임을 장자의 존재를 지움으로써 강조했다고 보인다.

<천지왕본풀이>에는 인간 삶의 공간을 비롯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인간은 그 공간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13) 클라스트르(번지현·이종영 옮김), 『폭력의 고고학』 울력, 2002; 클라스트르(홍성흠 옮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이학사, 2005 등 참조.

14) 클라스트르는 이러한 사회를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고 명명한다. 클라스트르(홍성흠 옮김), 위의 책.

또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떤 원칙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천지왕본풀이>가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집단이라면, <천지왕본풀이>가 제시하는 이러한 원리가 공동체의 세계 인식과 삶의 방식과 직결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근대적 일상과는 다른 ‘신화적 일상’의 일면일 것이다. 인간과 자연을, 문명과 야만을, 이성과 신화를 구분하고 그러한 구분 위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야만에 대한 문명의 우위를, 신화의 ‘어둠’에 대조되는 이성의 ‘밝음’을 당연시하는 근대적 사고는 인간의 삶을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리해 내고, 그 삶마저 가치로운 공적 영역과 사소한 사적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신화 세계 내에서 ‘일상’은 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거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천지왕본풀이>를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신화적 일상’의 특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진다고 본다.

3. <칠성본풀이> : 경험의 신화화 양상

제주도의 <칠성본풀이>는 사신(蛇神)인 부군칠성의 내력에 관한 신화이다. 제주도의 일반신 본풀이에 등장하는 신화 주인공 대부분이 인격신인 데 비해, <칠성본풀이>의 주인공은 ‘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¹⁵⁾ 그런데 제주도에서 ‘蛇神’에 대한 신앙은 <칠성본풀이>의 부군칠성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어서, 여타의 다른 형태의 사신(蛇神)의 존재 역시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¹⁶⁾ 한편, 제주도에서는 사신(蛇神)이 아닌 생물

15)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271면.

16) 秋葉隆(심우성 옮김),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255~266면; 진성기, 「제주도의 뱀신앙」, 『한국문화인류학』 10, 한국문화인류학회, 1978; 탁명환, 「제주 사신신앙에 대한 소고」, 『한국문화인류학』 10, 한국문화인류학회, 1978; 이기욱, 「제주도 사신숭배의 생태학」, 『제주도연구』 6, 제주도연구회, 1989; 문무병, 「제주도 당신양연구」,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1993, 132~171면;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 15,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5 등 참조. 김정희의 『제주풍토록』, 이원진의 『탐라지』, 『동국여지승람』 등에도 뱀 혹은 사신과 관련되는 제주의 풍속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학적인 뱀과 관련되는 습속도 적잖이 존재한다.

주목되는 것은, 사신(蛇神)에 대한 믿음과 숭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인 '뱀'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꺼리고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¹⁷⁾ 여기에서는 사신(蛇神)에 관한 대표적인 본풀이인 <칠성본풀이>와 함께 뱀에 관한 제주도의 문화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뱀에 대한 기피와 사신(蛇神)에 대한 경외(敬畏)의 간극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3.1. 신화 속의 뱀과 사신(蛇神)

먼저 <칠성본풀이>의 주요 서사 단락을 보자.

- (1)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이 칠성제를 드려 딸아기를 얻는다.
- (2) 딸아기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부부는 벼슬살이를 떠나고 딸아기는 여종에게 맡겨진다.
- (3) 여종이 물 길러 나간 사이, 딸아기가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는다.
- (4) 지나가던 중(僧) 세 명 가운데 세 번째 중이 딸아기를 데리고 다니며 잉태를 시키고 장설룡 집의 말뚝돌 아래 묻어둔다.
- (5) 장설룡과 송설룡이 돌아와 딸아기를 찾다가, 시주 받으러 온 중의 말을 듣고는 그 중이 일으킨 변고임을 알아차리고 중을 쫓아낸다.
- (6) 딸아기를 찾았으나 뱀 일곱 마리를 잉태하고 있었으므로, 석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보낸다.
- (7) 석함이 제주도 여러 지역에 닿으려다 실패하고, 드디어 함덕에 표착한다.
- (8) 함덕의 일곱 잠수와 한 남자가 석함을 열어보고는 뱀 여덟 마리가 들어있자 징그럽다고 내던지는데, 이 때문에 신병이 나서 사경을 헤맨다.
- (9) 문복을 하여 신을 박대한 죄를 받고 있음을 알고 곳을 하니 병도 낫고 부자가 된다.
- (10) 마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칠성당을 만들어 위하니 함덕 마을이 부촌이 된다

17) 문화공보부 문화재연구소 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 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78~84면.

- (11) 뱀들이 함덕을 떠나 제주시로 옮겨오자, 칠성골 송대장 부인이 집안으로 모셔 그 집은 거부가 된다.
- (12) 관원들이 지나가다가 뱀들을 보고 더럽다고 침을 뱉자 입병이 난다.
- (13) 문복하고 굶을 하니 병이 낫는다.
- (14) 어미 뱀과 딸 뱀 일곱은 각기 좌정할 곳을 정하고 송대장 집을 떠난다.

앞에서 말했듯 <칠성본풀이> 신화는 사신(蛇神) 부군칠성의 내력담이다. 그런데 본풀이의 서사단락에서 나타나듯이 장설룡과 송설룡의 딸아가 처음부터 ‘부군’, 즉 사신이었던 것은 아니다. 딸아기는 ‘칠성 혜게 빌어 태어난 귀한 아이였다. 그런데 딸아기는, 잉태와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아닌 ‘뱀’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신젓줄이 사았고나 젓머리 거명 호고
 얼굴은 보난 그전 얼굴이 그대롭서
 몸텨인 아리롱다리롱 호였구나.

- 한생소 구송본¹⁸⁾

문무병은 이 장면을 ‘위는 사람의 몸인데 아래는 뱀의 몸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풀고 있다.¹⁹⁾ 이러한 풀이는 ‘아리롱다리롱’이라는 표현 때문인데, 다음 자료에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

오장삼을 풀어놓고 아기썸 내여난 보난 아기썸 얼굴엔 검은 지미가 지고
 아기썸 몸첸은 아리롱다리롱호고 아기썸 뱀 보난 두롱베가 뒤었구나.

- 안사인 구송본²⁰⁾

‘아리롱다리롱’이라는 방언은 빛깔이 아롱다롱함을 나타내는 부사어인데, 아기썸이 낳은 일곱 뱀을 형용하는 데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보아 뱀의

18) 문무병, 앞의 책, 334면.

19) 앞의 책, 51면.

20) 현용준, 앞의 책, 422면.

빛깔을 표현하는 무가적 관용구로 볼 수 있을 듯하다.²¹⁾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서 이미 몸의 일부가 뱀으로 변하고, 뱀을 낳고, 뱀을 낳은 후에는 완전한 뱀의 형상을 하게 된 것은²²⁾ 아기씨와 관계를 맺은 '스님'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원래 인간의 몸을 하고 있던 아기씨가 뱀의 몸으로 변하고, 인간의 몸을 하고 있던 아기씨가 뱀 아이를 낳은 것은, 아이들의 아버지인 스님이 '뱀'의 현신이었음을 말해 준다. 길을 잃은 아기씨는 집에서 유리된 상태에서 '뱀'인 스님을 만나 그의 손에 이끌려 돌아다니는데, 이것은 인간인 아기씨가 인간 사회를 떠나 '뱀'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말이 된다. 아기씨는 뱀과 접촉하여 뱀의 속성을 나누어 받은 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뱀이 되어 돌아온 아기씨는 집안에서 쫓겨난다. 부모가 '뱀'의 속성을 지니게 된 딸을 거부한 것이다. 장설룡과 송설룡 부부의 이같은 행동은 벼슬살이를 떠나면서 딸을 집 안 깊은 곳에 유폐시킨 행위²³⁾가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유폐되거나 감추어진 소녀에 대한 이야기는 전세계적 분포를 보이는 신화 유형인데, 이 신화에서 '유폐된 소녀'는 사회적 관계나 영역의 확대 및 서로 다른 사회적 영역 간의 교류 거부라는 의미를 지닌다.²⁴⁾ '여성'을 교환하는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회의 교류나 결합을 이루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인데,²⁵⁾ 교환 대상이 되는 소녀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다는 것은 그러한 교류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때문이다. 장설룡과 송설룡 부부가 뱀이 된 딸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와 다른 사회와의 교류나 결합을 거부하는 것이며, 딸의 유폐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²⁶⁾ 장설룡 부부가 딸을 축출

21) 앞의 책, 419면.

22) 함덕리에서 처음 석함을 연 이들이 발견한 것은 서로 얽혀 있는 여덟 마리의 뱀이었다.

23) '마은은 곶 고무살장 무어놓고 고무살장 안에 가두원 아바님 어머니 공스 살양 올 때까지 느진덕정하님신디 궁기로 밥을 주고 옷을 주영 살림시던 공스 살양 왕 중문세 돌려 주키엔 히여놓고 아바님은 천양공스 살레가고 어머니는 지하공스 살레 가옴테다', 현용준, 위의 책, 421면.

24) 나카자와 신이치(김옥희 옮김), 『신화, 인류최고의 철학』, 동아사이, 2003, 56면.

25) 이에 대해서는 레비스트로스(안정남 옮김), 앞의 책의 제4장 '도토펜과 카스트' 참조.

26) 딸의 유폐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는 박종성, 『사신설화의 형성과 변이』,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14~16면을 볼 것

하는 표면적 이유는 부모가 없는 사이 임신을 했기 때문이지만, 위에서 보았듯 임신은 곧 뱀과의 교류 및 뱀의 속성 공유를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실질적 이유는 뱀이 된 딸에 대한 거부로 생각할 수 있다. 뱀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쫓겨난 딸아기는 제주도 함덕에 표착해서도 같은 대접을 받는다. 일곱 뱀 딸들과 함께 처음 인간의 눈에 뜨인 아기씨 뱀은 더럽다고 내던져지는 것이다.

뱀에 대한 거부는 위에서 살펴본 <천지왕본풀이>의 세계 인식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인간과 귀신,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고 분리한 <천지왕본풀이>의 세계 인식이 통용되는 신화 전승 공동체에서 ‘뱀’이라는 동물적 속성을 지니게 된 존재를 인간 세계에서 축출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뱀이 된 딸을 거부하는 장설룡과 송설룡 부부, 더럽다면서 뱀을 내던지는 함덕 사람들의 태도는 뱀=동물이 인간 세계에 섞여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신화 전승 공동체의 일반적 인식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칠성본풀이>는 뱀을 꾸대접한 사람들에게 ‘흉협’이 나타났고, 그 뱀들을 신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하면서 ‘뱀’과는 다른 ‘사신(蛇神)’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다. 제주도에 들어온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사신(蛇神)’이었으며, 이 ‘사신(蛇神)’은 공경하며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모녀 뱀들은 곧 함덕 마을과 칠성골 송대장 집에서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송대장 집을 나와서는 어머니와 일곱 딸들이 각각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차지하게 되는데, 각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통되는 좌정처는 안 칠성과 밧칠성, 그리고 관청²⁷⁾ 등으로 나타난다.²⁸⁾

이들 사신(蛇神)들이 제주도 전역에서 제향받게 된 것은 그들이 ‘富’를 관장하는 ‘富神’ 혹은 ‘豊農神’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7) 각편별 좌정처(혹은 관장처)에 대해서는 현용준·현승환, 앞의 글, 28~29면의 일람표 참조.
28) 뱀 모녀의 좌정처가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 현용준은 칠성부군이 일가 내지 일족 수호신인 조상신으로 모셔지다가 그 신앙이 전도민에 일반화되면서 일반신으로서의 사신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았다. 앞의 글, 30면.

(…) 안칠성님에서 보리농스 7을추곡 시만곡(新萬穀을 만발 滿發시경 이 간주당(此家內住堂) 대독 소독 검은 독 노린 독 대두지 소두지 섬으로 말로 뵈로 흙으로 열두시만곡을 신나습고, (…) 뒤으로 뒷칠성님이랑 유기제물 허튼 금전 신나수와 팔모야광주를 신나습고, 이간주당 천하거부 시겨줍서.²⁹⁾

위의 '비님'에서는 안칠성은 곡식의 풍요를 보장하는 풍농신·곡신(穀神)으로, 뒷칠성(밭칠성)은 유기제물과 흩어진 금전을 나오게 해 주는 부선(富神)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농경 사회에서의 '富'의 원천은 농경과 풍농에 있으므로, 안칠성과 밭칠성은 풍농신의 분화인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³⁰⁾ 제주도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칠성을 모시는 양상을 보자. 제주도의 전통 사회에서는 집집마다 '고팡(庫房)'이라는 것이 있었다. 주택의 실내에 위치하는 일종의 창고로, 독이나 항아리에 곡식을 담아 보관하였다. 사신 안칠성은 고팡의 여러 항아리들 중의 하나에 좌정한 것으로 믿어졌다. 제사나 명절 차례 때 안칠성이 좌정한 항아리 뚜껑 위에 제물을 차려 올리고, 제사나 차례 本祭가 끝난 후 올린 제물을 조금씩 떠 모아 항아리 뒤쪽 바닥에 부었다.³¹⁾ 곡식을 보관하는 항아리에 칠성신이 좌정하는 것은 칠성신, 즉 사신(蛇神)이 풍농신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칠성본풀이> 신화는 생물적 뱀에 대한 거부와 풍농신으로서의 사신(蛇神)에 대한 경외를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다.

3.2. '뱀'의 문화적 해석과 신화로의 수용 원리

사신(蛇神)이 풍농신으로 제향되는 것은 사신의 신체로서 드러나는 '뱀'의 어떤 속성이 풍농과 관련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칠성본풀이> 신화를 전승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뱀에 대한 몇 가지 의례를 살펴보면, 신화 전승 집단이 '뱀'을 어떤 속성을 지닌 생물로 이해했는가 드러난다.

29) 현용준, 앞의 책, 430~431면.

30) 현용준·현승환, 앞의 글, 32면 ; 이수자, 앞의 책, 275면.

31) 현용준·현승환, 앞의 글, 35면 ; 문화공보부 문화재연구소 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78면.

① 칠성새남

제주도에서는 뱀을 죽인다거나, 뱀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다거나 죽은 뱀을 보았거나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앓게 되는 병이 있다. 죽은 뱀이 흉험을 주어 병이 났다는 것이다. ‘칠성새남’은 이러한 경우에 치병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례인데, 죽은 뱀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의례의 주요 내용이 된다.

이 의례의 가정은, 뱀을 죽인 이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데 환자가 그 죄를 잘못 뒤집어썼다는 것이다. ‘허맹이’라는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호출되어 뱀을 죽인 존재로 벌을 받고, 잘못 죽은 뱀을 환생시키는 굿놀이의 형태로 의례가 진행된다.

② 토산당굿의 ‘방울푼’

이 제차도 말라죽은 뱀을 되살리는 의례이다. 긴 무명에 네 개의 고를 내고, 뱀의 멧힌 한을 풀어내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를 하나하나 풀어낸 다음, 마지막에 무명을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서려 놓아 뱀이 재생한 것을 상징시켜서 고팡으로 모신다.

이상의 의례에서 공통되는 것은 뱀이 ‘재생’의 동물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뱀이 지니는 생태적 특징인 ‘탈피’는 많은 문화권에서 ‘재생’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탈피를 통해 뱀은 새롭게 태어나고 또 탈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뱀은 ‘불사(不死)’의 존재로 이해된다.³²⁾ ‘재생’이나 ‘불사’는 ‘탈피’라는 뱀의 생태적 특성이 문화적으로 해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의례를 통해 ‘재생’과 ‘불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뱀의 속성이 된다.³³⁾

32)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에는 다음과 같은 신화가 전해진다. 하늘의 신이 인간에게는 ‘스데미즈’(생명의 물)을 주고 뱀에게는 ‘시니미즈’(죽음의 물)를 주어 지상으로 내려 보냈다. 스데미즈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가던 인간은 도중에 피곤하여 잠들었는데, 그 사이 뱀이 자신의 시니미즈와 인간의 스데미즈를 바꿔치기해 버렸다. 그래서 스데미즈로 목욕한 뱀은 영원히 살게 되고 시니미즈로 목욕한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遠藤庄治, 『宮古の創世神話』, 宮古の自然と文化を考える會 발표문, 미간행 23면 여기에서도 뱀이 탈피를 통해 계속 젊어지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본다.

33) 제주도에서 뱀은 일곱 번 죽어도 여덟 번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용준·현승환, 앞의 글, 37면

이러한 '재생'과 '불사'는 인간은 지니고 있지 못한 능력으로, 인간과 분리된 동물의 세계에 속하는 뱀에게 귀속되어 있다. 뱀은 '영원한 생명력'이라는, 인간이 지니지 못한 자연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뱀의 능력은 인간에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농경과 관련하여서는 '재생'과 '불사'가 '풍요'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능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뱀의 능력을 농경이라는 인간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앞서 <천지왕본풀이>를 통해서 보았듯 동물인 뱀과 인간은 병존하되 서로 상관할 수는 없다. 뱀을 뱀의 공간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뱀의 '힘'을 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뱀의 '힘'을 욕망하되 뱀을 끌어들이 수 없는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여기에서 '뱀'은 거부하되 '사신(蛇神)'은 거부하지 못했던 <칠성본풀이>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칠성본풀이>에서 인간세계로 침입해 들어오는 뱀은 거부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사신(蛇神)은 오히려 거부하면 흉험을 내리는 존재였다. 신화 전승 집단은 뱀의 속성을 사신(蛇神)에게 추상화하여 봉인함으로써, 생물학적 뱀과의 분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 '힘'을 인간 세계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뱀이 지닌 동물의 힘은 신의 힘으로 전이되어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사신(蛇神)이 풍농신으로 믿어지는 것은 뱀이 지닌 재생력과 생명력을 농업에 끌어들이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⁴⁾

여기에서 신화적 삶, 즉 신화적 일상과 신화와의 관계 양상을 또 하나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창조신화로 구체화되는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신화 전승 집단은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비롯되는 현실적 욕망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간다. 그리고 신화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설명적 근거로서 작용한다. 생활 속에서 발견한 뱀의 속성을 '사신(蛇神)'의 특성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풍요에의 욕망을 구현하려 한 <칠성본풀이>는, 일상과 신화가 분리되지 않는

34) 이수자, 앞의 책, 275~276면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껍질 벗기와 이로 인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데서 유추된 영생불사의 동물이라는 관념' 이외에, 난생, 다산성, 물과의 상관성을 뱀이 풍농신으로 인식되는 요인으로 들었다.

신화적 삶의 한 일면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4. 結

본고는 신화와 신화 전승 공동체의 일상적 삶이 맺는 관계양상을 살핌으로써 근대적 일상과 구분되는 신화적 삶의 양상을 고찰하는 한편, 신화와 신화적 삶이 어떤 상호 관계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주도 신화 <천지왕본풀이>와 <칠성본풀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신화는 신화 전승 공동체의 세계관 및 삶의 윤리를 드러내며, 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욕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해결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신화와 공동체의 일상과의 관련 양상이 보다 정치하게 밝혀진다면, 신화가 전승되던 공동체를 지배하던 세계관이나 윤리를 드러냄으로써 오늘날의 ‘사회’와는 다른 전통사회 공동체의 특성을 밝힐 수 있다. 이것은 신화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신화 연구는 과거의 삶의 방식에 대한 고찰임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 보일 수 있는 여지를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화 속에서 근대적 삶과는 다른 신화적 삶의 양상과 원리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K C I

참고문헌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 보존회, 1998.
- 문화공보부 문화재연구소 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 현용준, 『제주도무속신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赤松智城·秋葉隆(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상』, 동문선, 1991.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3.
-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사랑, 2000.
- 나카자와 신이치(김옥희 옮김), 『신화, 인류최고의 철학』, 동아시아, 2003.
- _____, 『꿈에서 왕으로-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 동아시아, 2003.
- 레비스트로스(안정남 옮김), 『야생의 사고』, 한길사, 1999.
- 말리노우스키(서영대 옮김), 『원시신화론』, 민속원, 1996.
- 클라스트르(변지현·이종영 옮김), 『폭력의 고고학』, 울력, 2002.
- _____(홍성흡 옮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이학사, 2005.
- 小島瓊禮, 『蛇の宇宙誌』, 東京美術, 1991.
-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구비문학회, 1980, 1~30면
- 이기욱, 「제주도 사신숭배의 생태학」, 『제주도연구』 6, 제주도연구회, 1989, 181~212면
-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담라문화』 15, 제주대 담라문화연구소, 1995, 1~73면.
- 遠藤庄治, 「宮古の創世神話, 宮古の自然と文化を 考る 會 발표문, 미간행, 1~41면.

A Study on the Mythical Life and Making Myth of Daily Experiences in *Jeju-island*

Jeong, Jin-hee

The daily life of mythical society differs from that of modern society or modernity. I call it mythical life, and found that it is very unique in comparison with modern daily life by examining a few myths of *Jeju-island*.

<*Chonjiuwang-bonpuri*(myth of the king heaven-earth)>, the creation myth of *Jeju-island*, shows the order of this universe and the ethics of our living in this world. The heaven controls 'isung(this world)' and 'jeosung(other world)', and 'isung' is composed of the Nature, Human and Living Creature. It is not the Human but the Nature that controls the other parts of this world, and the Nature is controlled by the God of Heaven. Therefore, we can say that <*Chonjiuwang-bonpuri*> shows the status of the Human in this universe and this world, and the ideal type of mythical life.

Moreover, <*Chonjiuwang-bonpuri*> says that the appearance of king-man is forbidden in this world by showing that '*Sumyong janja*', who had a lust for power to human, was punished by '*Chonjiuwang* (the king of heaven-earth)'. The king is not the man but the God. The desire of man to govern or rule over this world, which is an important feature of modernity, is not allowed in myth and mythical universe. I think that this is the uniqueness of mythical ethics differs from that of modern's.

By the way, in a communal society based on mythical principles and ethics, how can the human's experience in real world be made into myths? I examined <*Chilsung-bonpuri*(myth of '*Chilsung*'; a myth about the god of wealth)> for example. I focused on the fact that '*Chilsung*' is a god has a body of snake but a snake is tabooed in *Jeju-island*. The people of mythical society desire the power of snake like as rebirth and immortality —maybe, this character of snake comes from its sloughing habit— that bring about wealth and fertility, but a snake is the

animal which is forbidden to enter the human's world. So, people thought out the snake 'god' who can control and enter the universe of themselves. In this case, we can say that the operation of < *Chilsung-bonpuri* > is to explain that their desires can be satisfied without conflicts with their mythical life.

Briefly speaking, in a mythical society, myths show the principles of daily life and satisfy the desires occurring in daily life.

Keywords : mythical life, creation myth, mythical ethics, snake god, desire of society

접수일자 : 2005. 12. 21 심사기간 : 2006. 4. 7~2006. 4. 28 게재결정 : 2006. 5. 16
--

K C I

к с і